

수산항 건설공사 현장

김진학 / (주)삼양사 교문, 안전관리자

동해 바다의 일출을 보고 출근을 시작하는 전 직원은 아침 바다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오늘 해야 할 작업 설명과 안전에 대한 주의를 마치고 각 팀별로 하루의 작업을 시작한다.

물 맑고 산 좋은 금수강산이라 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오는 강원도에 작업 현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의 마음도 자연 환경만큼이나 깨끗하고 아름답다.

지형상 여름이 짧다고 해서 4계절이 아닌 3계절이라 불릴 만큼 아침 저녁으로 쌀늘한 이곳은 항상 기후의 영향을 받게 되어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갖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지난 3월에 착공한 이곳 수산항 건설공사 현장은 북방파제 폭 11m, 높이 8m, 연장 106m의 공사를 하는 바다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다.

수심 12m 내외에 1m³급 사석을 메우고 기초 사석 돌짜기를 하여 T/P 5톤급(삼각블럭, 일명 땅콩 방괴), T.T.P 50톤급(Tetra pod)을 대형 크레인 200톤급으로 거치하는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

이렇게 시작하여 방괴거치와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T.T.P 50톤급으로 거치 작업이 완료된다.

현재 50%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직

원과 근로자의 피와 땀이 담긴 최선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작업 현장은 출근은 의욕적으로 시작해서 퇴근시에는 보람을 갖는 삶의 터전이 되었다.

우리 회사는 건설 면허 제44호를 소지하고 35년 동안 강원도 동해안 일대의 방파제 공사만 전문적으로 해오는 동안 최고의 기술과 신용을 인정받고 있으며, 거진항에서부터 삼척 호산까지 9개항(16회)의 방파제 공사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어선의 안전 정박과 어획물 양육의 원활을 도모하고 어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 조성을 이룩하는 데 선두적 역할을 하었다고 본다.

본사는 춘천시 중앙로에 봉의산을 바라보는 곳에 위치하고 사령탑의 기획을 주도하며, 현장은 양양군 수산으로 현장 소장은 전직원이 혼연의 일체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장을 수시로 순회 지도 감독 관리하면서 근로자와의 상담을 통한 공정상의 애로점을 해결해주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현장은 안전과 견실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 팀별로 시공중 안전을 위한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케 하여 인적 안전과 물적 안전에 대비하고

* 이번 호 「우리현장최고」란은 우리 협회 기술지도부 직원들로부터 성실하게 안전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건설기술인(또는 현장)을 추천받아 그 건설기술인으로부터 그 건설현장과 본인의 안전의지를 소개받은 코너입니다.

있다.

작업공정은 6 공정이지만 작업 안전의 점검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한다면 T.T.P 50톤급 제작시 안전대 및 사다리 설치 사용과 임시 전치시 크레인 중량물 인양 Wire Rope 점검이고 또한 방파제 T.T.P 50톤급 완전 거치시 크레인 중량물 거치용 Wire Rope 점검과 사석 1m²급 돌짜기 거치용 chain 점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량물 제작과 방파제 타설시 안전 난간대 설치 및 작업환경 개선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근로자를 불안정한 작업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각 팀별로 특성이 있는 기능 숙련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으나 공사가 대형 구조물의 기계화로 확대되면서 작업의 종류가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현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하며, 작업지시서에 안전교

육 요점을 기록하여 교육을 시키고 매일 작업 전 각 팀장 중심으로 시공중 안전을 해결함으로써 안전의식이 고취되었으며, 매일(일반, 장비, 주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회 이상 순회지도 함으로써 안전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주지시켰다.

그리고 현장 20개소에 안전수칙판, 위험표지판, 안전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시각적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매주 금요일은 점검의 날로 정하여 작업 주변을 정리정돈함으로써 청결 및 질서 유지로 안전 생활을 확립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현장은 안전제일주의로 근로자의 건전한 정신과 바른 작업자세가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기틀이며 창의를 현장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건설인의 긍지를 느끼며 오늘도 수산항 건설공사 방파제의 완공을 위하여 힘차게 경주하고 있다.

